

JiR NEWS

우리 집 이야기

2024
VOL.20

농생명·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도내기업과 함께 지역사회 사랑나눔 사회공헌활동 펼쳐
-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식품산업 발전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전문가 세미나 개최
- 기업지원사업 통합 성과보고회 성황리 개최
- 「NS 푸드페스타 2024」 식품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수상
- 수도권 주부들에게 전북도의 멋과 맛을 선보이다
- 미국 H마트와 손잡고 전북 농수산식품 글로벌 시장 도전
- 신규장비(분무건조기) 도입으로 도내기업 상품화 경쟁력 강화
- 전북 바이오헬스산업 도약을 위한 맞춤형 지원 소식
-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성료, 농식품산업 활성화 기여 평가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역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주요기능 및 역할

1 기획경영



-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기획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성과 관리
- 혁신기관 산학연 네트워크 협력 강화

2 농생명산업육성



- 농생명·바이오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전통식품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원
- 전북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

3 R&D 및 기술사업화



- 농생명·바이오 분야 R&D 사업 기획
- 지역 특화 소재 활용 고부가 R&BD 지원
- 우수 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4 수출지원



-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 전북 농식품기업 B2B상담 및 수출활성화 지원
- 수출 중소기업 판로확대 역량강화 지원

5 생산·분석 지원



- 건강기능식품(GMP) 제형화 연구 및 생산 지원
-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등 품질분석
-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등 상품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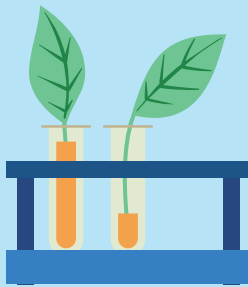
6 창업·일자리 창출



- 농생명·바이오 특화 창업보육 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 현장 교육 및 실무형 우수 인재 양성
- 기업 맞춤형 고용연계 일자리 창출



2024 VOL.20



2024 VOL.20

C / O / N / T / E / N / T / S

도내기업과 함께 지역사회 사랑나눔 사회공헌활동 펼쳐 04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05

식품산업 발전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06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전문가 세미나 개최 07

기업지원사업 통합 성과보고회 성황리 개최 08

「NS 푸드페스타 2024」 식품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수상 09

수도권 주부들에게 전북도의 멋과 맛을 선보이다 10

미국 H마트와 손잡고 전북 농수산물품 글로벌 시장 도전 11

신규장비(분무건조기) 도입으로 도내기업 상품화 경쟁력 강화 12

전북 바이오헬스산업 도약을 위한 맞춤형 지원 소식 13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성료,
농식품산업 활성화 기여 평가 14

진흥원 안내도 16



발행처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발행일 2024년 12월 전화 063-210-6500

홈페이지 www.jif.re.kr 주소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JIF NEWS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구독신청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내기업과 함께 지역사회 사랑나눔 사회공헌활동 펼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및 도내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천년전북 청년식품 회원 20개사 및 사회공헌활동 협약기업 18개사와 함께 도민행복을 위한 지역사회 사랑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두손푸드, 홍삼이생강날때, 다운파파푸드, 건강한밥상, 한우물, 포스피, 장수도깨비, 모닝팜, 오랑도랑, 창창푸드, 그린팜푸드, 버섯마루, 흥시궁, 토종식품, 아리당, 프루티편, 홀섬, 다복술식품, 맑은상회 F&B, 자연앤미 등 20개사는 마시는죽, 한우곰탕, 배추김치, 생강청 등 약 3천만원 상당의 26종 식품을 지역 아동보호시설인 삼성휴먼빌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푸드뱅크에 전달하였으며,

오가넬, 만선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말린, 해승컴퍼니, 밥닥, 제이웰푸드, 지라산처럼영농조합법인, 천년누리, 뿌농, 팜조아, 힘찬마루, 메밀꽃향아리, 디자인농부, 에프엘컴퍼니, 리퓨터, 시크한, 남원미꾸리추어탕, 유스타팜 등 18개사는 식품, 화장품, 노트북 등 총 20종 약 2,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덕진노인복지관에 나눔하였다.

또한 단순 일회성 나눔에 그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러한 나눔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도내기업 간 사회공헌 연대활동을 펼치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9월 20일 기관의 인권경영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체계를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2019년 인권경영지침 제정 및 헌장 선언 이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모든 단계를 이행했으며, 연내 2024년 인권경영 추진계획에 따른 '구제절차 모의실행' 및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기관의 성숙된 인권 존중 문화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진흥원이 인권 존중을 중심으로 한 경영철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임직원들의 인권의식 개선 및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의 산물"이라며, "이번 인증을 통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인권경영이 조직문화와 경영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산업 발전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과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주)팔알(병원장 김정연), (주)오팔(대표이사 박동혁), (주)코어솔루션(대표이사 이길형)이 식품산업 발전 및 기술교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체제 강화와 상호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이은미 원장을 비롯해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김정연 병원장, 박진만 이사장 등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및 학술교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 식품·바이오 개발 지원 및 지식재산권 취득에 관한 협력 ▲ 각 협약기관이 보유한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인적·물적 교류 ▲기술개발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기관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식품 개발 기술 고도화 ▲정부출연기관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통한 고품질 식품 생산을 통하여 국내/외 식품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연구 인력, 시설, 장비 등 각 기관의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연구 개발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절감 ▲전문기관의 전문 인력 통한 R&D 사업 확장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김정연 병원장은 “농생명·바이오 분야에 열심히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병원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령친화식에 첫발을 디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함께 협력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자하니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친화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는 유기적 협력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전문가 세미나 개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농생명 바이오 관련기관 및 기업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을 AI·빅데이터 기반 기술과 접목하여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진입 가속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전문가 강연에서는 고려대학교 정세영 교수가 'AI시대 규제과학의 혁신방안'을 주제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확장과 신 기능성 후보물질 발굴시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이 필요함 강조하였고, 농촌진흥청 안정훈 서기관은 '빅사이언스 시대 국가데이터정책'을, 전북대학교 정길도 교수는 '바이오네트워크기반 소재발굴'을 주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 실험 최적화가 가능함을 강조하여 참석자에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어진패널토의는채한정센터장(전북대학교유효성평가센터)을좌장으로 채수완 센터장(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센터), 권중기 교수(전북대학교), 김석호 교수(군산대학교), 신대근 대표(기술기획사업화 전략원), 강병철 상무(인실리코젠)가 참여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와 AI·빅데이터의 기술활용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최근 우리 사회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산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 충족을 위한 장기간의 개발과정이 소요되고 낮은 인 허가율 등 규제 리스크가 큰 분야로 하나의 기업이 설계,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으로 이의 규제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와 사업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 강조하며 "우리 바이오진흥원은 이 과정에서 기업과 연구, 그리고 지역과 산업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전북도가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지원사업 통합 성과보고회 성황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12월 12일(목) 전주 그랜드 힐스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육성사업,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통합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각 사업별 성과보고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성과보고회로 일원화 함으로써 사업의 성과 공유와 기업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농생명산업 분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최재용 국장을 비롯해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35개사,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22개사,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30개사의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전북 농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표창을 수여했는데, 먼저 매출액 기준으로 단계별 성장을 이룩한 무주덕유산반딧굴과 다락에프앤비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상을 수상했으며, 또한 지리산처럼, 쿠앤즈고궁, 어성호, 산마을의 주요성과를 인정받아 바이오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전주대학교 전효진 교수가 '농생명식품산업의 혁신, 푸드테크 트렌드와 적용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에게 산업 트렌드와 적용 방안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최재용 국장은 환영사에서 "전북은 바이오진흥원을 중심으로 창업 아카데미 운영, 지역 일자리 창출, 전북 대표기업 육성 등 다각적인 성과를 이루며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내년도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앞으로도 농생명식품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NS FOOD 페스타 2024 식품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수상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은미 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월 도전! J-스타트업 창업콘테스트를 통해 도내 유망 20개사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애로혁신 멘토링, 기업별 맞춤형 기술 및 사업 고도화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20개사 중 대표기업 육성을 위해 2개사[(주)반석산업과 (주)에프엘컴퍼니]를 대상으로 창업기업발굴-시제품제작-판로개척-마케팅지원-혁신기술강화-투자유치교육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통해 스케일 벨류업(Scale Value-up) 및 기업 역량을 강화하여, 지난 9월 27일 익산시와 NS홈쇼핑 주최로 실시한 『NS FOOD 페스타 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1차 선발된 8개사 중 각각 1, 2등에 해당하는 창의상(주)반석산업과 혁신상(주)에프엘컴퍼니)을 수상하고 일천만원과 팔백만원의 상금을 수여받았다. 아울러, 금번 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들은 향후 NS홈쇼핑에서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특화역량 BI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보육센터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지역거점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전북 도내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전주기적인 지원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창업지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NS FOOD 페스타 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성과는 전북 농생명 산업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거점형 창업보육센터들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잘 운영된 결과이며, 향후 도내 다양한 창업 유관기관들과 더욱 밀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내 식품산업 육성 우수 지원모델로 우뚝서기를 희망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수도권 주부들에게 전북도의 멋과 맛을 선보이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과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진행된 수원 메가쇼 시즌2에서 전북공동관을 운영했다.

수원 메가쇼는 250개사 400부스의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이자 수도권 600만 주부들의 핫플레이스로 바이오진흥원은 도내 전통·수산식품 기업들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전북공동관을 기획하여 참가했다. 프리미엄 타워부스 형식으로 색다른 테마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즐겨요/바다의 보물', '전북간부상회' 등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전북도의 '멋'을 보여주었고, 다양한 식품군과 전북도의 '맛'으로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도내 전통식품 기업 14개사, 수산식품 기업 10개사와 함께 전북공동관을 운영한 바이오진흥원은 곰탕, 누룽지스낵, 침출차, 전복죽, 김부각, 계장 등 다양한 전통·수산식품군을 선보이며, 현장 계약 및 판매실적 약 3억 9천만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계약 및 수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완주의 그린팜푸드(곰탕)는 주부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현장 매출 약 1천2백만원의 성과를 창출했고, 정읍의 두손푸드(전복죽)는 파우치에 담겨있는 마시는 죽이라는 색다른 점에 반한 바이어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미국, 일본 등 여러 바이어들에게서 샘플 요청이 쇄도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기업 대표는 "수원 메가쇼 시즌2 전북공동관에 참가하여 국내 판로개척은 물론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까지 할 수 있어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바이오진흥원에 감사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사 제품의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관람객들의 반응을 직접 보며 마케팅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진거 같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과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우수한 전통·수산식품을 수도권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매 및 국내외 판촉 활동 지원 등으로 도내 식품기업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H마트와 손잡고 전북 농수산물 글로벌 시장 도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미국 최대 아시아 식품 유통 체인 H마트의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농수산물식품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자리로 도내 18개 식품 기업이 참여하여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H마트는 미국 16개 주와 캐나다, 런던 등을 포함해 전 세계 총 90여개 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매출액이 약 26억 달러(약 4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북미 최대의 아시아 식품 전문 유통체인이다. 특히 H마트는 전통적인 한식뿐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식품을 북미 시장에 소개하며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도내 식품기업 30개사의 신제품이 전시되었으며, 바이어들로부터 품질과 패키징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제품 개선 및 현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피드백이 제공됐다.

H마트 바이어들은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품질은 물론 현지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내년에는 가능성 있는 신규 품목의 현지 테스트를 통해 전북 생산 식품의 수출 품목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상담회는 단순한 수출 상담을 넘어 전북 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고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전략과 수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 지역 농수산물식품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장비(분무건조기) 도입

바이오진흥원은 도내기업의 희망활용장비 사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정부지원사업을 수주하여 약 2억3천만원 상당의 분무건조기를 신규 구축하고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이는 식품 및 화장품의 기능성 소재 등에 활용되는 다양한 도내 농수산물의 원료가공에 활용되어 도내 기업의 상품화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

- 장비명: 분무건조기
- 구축일자: 2024-12
- 표준분류: 기계가공/시험장비>열유체장비>건조기
- 설치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F1층 분무건조실
- 장비설명: 분무건조법은 분무기(atomizer)에 의해 미립화된 액체 방울이 가열공기와 접촉하여 순간적으로 건조·분말화되는 것인데, 건조할 때에 액체 방울 주위는 수증기 막으로 둘러싸여 습구온도로 건조되므로 열에 민감한 식품의 건조에 알맞고 연속 대량 생산에 적합
- 사용문의: 상품화지원팀 송대길 과장/이메일 : sdk1125@jif.re.kr/연락처 : 063-210-6552

□ 구성 및 성능

구성	성능	구성	성능
건조	최대 25L/시간	스크러버	분진 및 가스 포집
원심분무기	15,000RPM 회전으로 분사	원액공급펌프	원심분무기에 슬러리(원액) 투입
송풍기	분당 최대 15㎡ 공기를 흡·배기	전기장치	터치스크린으로 시스템 운영



설치장소 :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분무건조기 구축

전북 바이오헬스산업 도약을 위한 맞춤형 지원 소식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바이오 지식을 기반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헬스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한 본 사업은 2023년 10개사, 2024년 12개사를 지원하며, 전북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 기반마련 및 기술, 기업 역량 강화를 다지는데 기여해 왔다. 현재까지 집계된 2024년 수혜기업 예상 매출액은 118억원, 수출 9.8억원, 고용 11명이며, 이외에도 사업 수주 28건, 인증 획득 16건, 미국법인 설립, 국내외 신규거래선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전북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맞춤형 세미나와 산 연 관 연계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 간담회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5년에도 12개사 내외의 바이오헬스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가 도내 소재한 예비 창업 중소기업이다. 수혜기업 모집은 2025년 2월 초에 공고될 예정이며, △시제품 제작, △국내외 인증 획득, △액셀러레이팅, △특허, △컨설팅, △교육, △홍보 마케팅 등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성료 산업 활성화 기여 평가



발효식품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낸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닷새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우리 발효식품시장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속에 마무리 되었다.

국내외 25개국 321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국내외 식품관련 바이어와 각국 대사관 등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B2B 상담회를 통해 수출 계약액 149만불을 기록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전통발효식품부터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가정간편식 제품까지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국내외 참가기업 상품들과 푸드테크 로봇, 스마트팜 로봇, 글로벌 발효식품전, 2024 우수상품전, 신제품 쇼케이스 등 다양한 전시아이템을 선보인 “특별기획전시”를 비롯해 우리 지역의 식품명인을 집중 조명한 전북식품명인대전과 제18회 전북음식문화대전도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글로벌 농식품 교류 및 판로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교육프로그램과 어린이 뮤지컬 등 품격 높은 문화공연이 행사기간동안 진행되며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이은미 원장은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농식품 산업발전을 이끄는 행사로 거듭나며 우리 식품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끌어올렸다. 앞으로도 식품을 통한 전북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확대하여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발효식품과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B2B 수출상담회



특별기획전시



전북식품명인대전



해외기업관



국내기업관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진흥원 안내도

본관(첨단바이오·식품센터)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본관
- 벤처기업 입주공간 제공
- 연구개발 공간

식품분석센터



- 연구개발 및 품질검사
- 영양성분 등 특정검사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 GMP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
- 기술력 위주의 유망기업 입주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



- 창업기업 입주
- 온라인 화상상담실

비즈니스센터



- 도내 식품기업 상품 전시관
- 바이어 상담실
- B2B 화상 상담실

찾아오시는길

